

蘇東坡의 海南島 流配詩 探索

曹圭百*

◁ 目次 ▷

- I. 緒論
- II. 蘇東坡 海南島 流配文學의 創作背景
 - 1. 蘇東坡의 政治生涯 개괄과 海南島流配의 政治的 背景
 - 1) 소동파의 정치생애 개괄
 - 2) 해남도유배의 정치적 배경
 - 2. 海南島 流配地의 環境
- III. 蘇東坡의 海南島 流配詩 探索
 - 1. 中原復讐意志와 제2의 고향감정
 - 2. 隔絶心境과 超脫心境
 - 3. 陶淵明에 대한 호모와 그一體感의 표현
 - 4. 海南島 風情의 묘사
 - 5. 閑適한 生活情趣
- IV. 結論

I. 緒論

海南島는 北宋의 전형적인 流配島嶼이다. 일찍이 중국 북송 최고 수준의 문인이자 예술가, 정치가, 학자인 東坡 蘇軾(1036-1101년)은 만년에 최남단 섬인 海南島에서 대략 3년(1097-1100년, 62-65세)에 걸친 유배생활을 경험하였다.

이 대문호는 고통스런 孤島에서의 유배생활에서도 절망으로 마치지 않고 그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시키어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다. 또한 그는 정치적인 파란에 의해 남방의 해남도로 유배되어 칭찬과 비방이 자못 분분하였고, 섬에서 생활하며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역경 속에서도 진지한 인생태도로 고매한 사상을 드러내었으며, 또한 동시에 '환경이 곤궁할수록 더욱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낼 수 있다'는 문학환경론을 실

* 제주산업정보대학 講師

천적으로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유배문인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가지 위의 버들 숨은 바람에 날려 더욱 적어지는데/ 하늘가 어느 곳인들 향 내나는 꽃이 없으리오(枝上柳綿吹又少, 天涯何處無芳草)”(《蝶戀花(花褪殘紅青杏小)》)란 詞句가 상징하듯, 그는 해남도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뜻뜻한 인정미 등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하였는데, 이에 생명에의 의지까지 느끼게 한다. 그는 평생 그래 왔듯이 해남도 유배시기에조차 마치 일기처럼 매 순간의 환경과 내면세계의 흐름을 시로 적어놓고 있다.

본고는 東坡의 海南島 유배시를 범주로 하여 孤立無援의 섬 유배생활에서 창작한 시세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시의 핵심적 특징을 탐구하여, 근본적 창작자력과 폭넓은 胸懷, 그리고 생명력의 비결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개성적인 면모가 현대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규명해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본 텍스트(《蘇軾詩集》)에서 핵심적 흐름을 찾아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견지하겠다. 다만 한 수의 작품 안에 여러 제재와 주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다 중심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어 분류,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의 자유로운 사고로 재검토, 분석하여 그의 참된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작품 자체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작품을 형성하게 된 당시의 역사, 정치, 지리와 문화환경 등을 보조적으로 운용하여, 유배문인의 전형성을 구비하고 있는 그의 작품에 관통하는 핵심적 질서를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겠다.

Ⅱ. 蘇東坡 海南島 流配詩의 창작배경

1. 蘇東坡의 政治生涯 개괄과 海南島 流配의 政治的 背景

그의 생애는 과거에 합격한 이후 평생토록 정치의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큰 起伏을 이루고 있었다. 그만큼 그의 시문학은 波瀾이 심했던 정치생애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제대로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선 그의 정치생애를 개괄해 보고, 이어서 해남도 유배의 정치적 배경을 파악해 보겠다.

1) 蘇東坡의 정치생애 개괄

여기서는 관직의 이동을 중심으로 그의 정치생애를 개괄해 보겠다.

① 修學期와 仕宦前期(1-44세):

1036年 四川省 眉山縣에서 出生, 科擧合格(21-26세),

地方官與中央官 歷任: 鳳翔判官(26-29), 判登聞鼓院(30), 直史官(30), 父喪歸鄉(31-33), 監官告院(34-36), 權開封府推官(36), 地方官自請, 杭州通判(36-39), 密州知州(39-41), 徐州知州(42-44), 湖州知州(44), 烏臺詩案(入獄)(44)

② 黃州流配期(44-50세)

③ 仕宦後期(50-59세):

. 朝廷의 高官과 地方의 知州歷任:

登州知州(50), 禮部郎中(50), 起居舍人(50), 中書舍人(51), 翰林學士知制誥(51), 翰林學士(52-54), 杭州知州(54-56), 翰林學士承旨(56), 潁州知州(56-57), 揚州知州(57), 兵部尙書(57), 兵部尙書兼侍讀(57-58), 禮部尙書(58), 定州知州(58-59).

④ 惠州(59-62), 海南島(63-65)流配期와 北歸(66)

. 1101년 北歸도중에 常州에서 卒

2) 海南島 유배의 정치적 배경

동파의 해남도 유배는 舊法黨과 新法黨간의 黨爭의 소용돌이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동파의 정치생애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王安石的 신법시행: (동파 34세 무렵) 神宗의 신임을 받은 왕안석이 국가 재정문제와 군사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대응책으로서 '미증유의 경제적 조작'을 시행한 것이 바로 신법이다. 이 新法에는 애당초 현실을 직시한 긍정적인 발상이 적지 않았으나, 실제의 실행과정에서 지나치게 성급하고 과격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혁신의 여건과 기반조성의 미흡, 관리임용에 있어서의 인재등용 실패 및 각 방면에 걸친 試行錯誤 등으로 파악된다.

이에 新舊黨爭의渦中에 돌입하였다. 기실 동파 역시 王安石 新法이전에 벌써 국가경제의 강화, 강력한 국방, 공정한 관리임용 등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었다. 그런데 이 시기 東坡는 지나치게 급속한 新法추진에 대한 우려와 신법의 시행상의 착오로 말미암은 폐단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당시 舊法黨은 신법반대 세력의 집합체로, 新法黨은 신법추진 세력의 집합체로 하여, 자연스레 두 당파가 형성되었다. 자신을 알아준 歐陽修와 함께 동파는 구법당에 속하였는데, 이는 정치경제관에 의한 政見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

이전에 혁신이 유발시킨 민중의 고통과 그 試行錯誤를 목도하고 詩文을 통해 시정과 철계를 주장한 것으로 인해, 동파는 44세 때 新法 諷刺, 조정 우롱, 황제 지탄 등의 구실로 탄핵되어 御史臺에 구금되고, 130일 간의 투옥생활 끝에 석방되어 黃州로 유배된다. 이는 「烏臺詩案」으로 불리는데, 新法黨과 舊法黨간의 정치권력투쟁의 산물로서 동파 개인의 생애에 커다란 명암을 드리운 筆禍事件이다.

② 舊法黨의 대두(元祐硬化): 이 시기는 동파가 중앙관과 지방관을 두루 거치고 나서 비록 단기간이지만 兵部尙書, 禮部尙書 등 최고의 관직을 누린 기간이다. (동파 51-58세) 神宗이 崩御하고 당시 10세이던 哲宗의 즉위하자 太皇太后 高氏(英宗 妻)가 垂簾聽政하여, 司馬光을 재상으로 기용하는 등 舊法黨의 인물들을 대거 중앙정계에 복귀시켰다. 이때 신법의 전면적인 철계를 주장한 司馬光과는 달리 동파는 新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말고 新法の 利害得失을 객관적이고도 엄밀하게 파악하여, 신법 가운데 장점이 있으면 잘 활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백성의 편의와 국가의 安危를 중점으로 고려한 나름대로 타당한 판단이었다고 보여진다.

③ 哲宗의 親政: 哲宗의 親政은 神宗 때의 施政方針을 계승하여 新法을 부활시키게 했다. 이에 新法黨이 정권을 장악하자, 舊法黨 관료들은 탄핵 및 추방을 당하고, 동파도 (현재의 광둥성) 惠州(59-62세)와 (해남성) 海南島(62-65세)로 유배되었다. 이는 北宋 당시의 정치권에서 王安石의 몰락 이후 왕안석의 드넓은 정치적 理想은 도외시한 채 집권욕만 드세어진 王安石의 후계자격인 '急進勢力(新法黨)'과 '점진적 개혁勢力 및 保守勢力(舊法黨)'사이의 알력으로 인한 소용돌이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이르자 '新舊黨爭'은 이전 같은 국가대사를 위한 정견의 차이로 인한 논쟁이 아니라, 정권쟁탈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④ 동파는 惠州에서 2년 남짓 謫居生活을 보낸 다음, 62세에 瓊州別駕, 昌化軍安置으로의 移配명령을 받아, 셋째 아들 過만 데리고 바다를 건넜다. 7월 海南島의 儋州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일찍이 '하늘가와 바다 끝(海角天涯)'이라 불리던 海南도에서 3년의 유배생활을 보내게 된다.

65세(元符3年)에 哲宗이 붕어하고 徽宗이 즉위하자, 神宗의 妻 尚氏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新舊兩派를 모두 등용 中庸의 정치를 행한다는 방침에 의해 동파는 사면되어 북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廉州安置의 명령을 받고 廉州에 도착하자, 곧 舒州團練副史, 永州居住를 명령받았다. 11월 朝奉郎, 提舉成都玉國觀이 되어 거주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다가 66세에 北歸도중 그가 예전부터 은거하고자 소망했던 常州에 도착, 病으로 波瀾萬丈한 생애를 마쳤다.¹⁾

⑤ 동파의 死後 이듬해 宋 崇寧元年(1102), 동파는 「元祐黨籍」에 들어가 관직이 追削되고, 그의 저작도 禁書로 되었다. 南宋 高宗 建炎연간에 이르러서야 누명을 벗고 복권되었다. 南宋 孝宗 때에 「文忠」이라는 諡號가 내리고, 그의 작품집도 다양한 판본으로 널리 유전되었다.²⁾

이처럼 그의 해남도 유배는 긴장과 이완을 거듭하며 출렁거렸던 시대적, 정치적 충돌의 상징이었다.

2. 海南島 流配地의 環境

이제 동파의 散文 2편을 통해 海南島의 自然環境을 살펴보자.

嶺南지방은 날씨가 습기가 많고 地氣에 김이 오르고 찌는데, 해남도가 더욱 극심하다. 여름 가을의 교체기에는 부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이 쇠나 돌이 아닌데 어찌 오래 견딜 수 있으랴. 그러나 僂耳에는 자못 백세 이상 된 노인들이 제법 있으니, 80-90세 된 이들은 논할 것도 없다. 이에 長壽와 夭折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 편안히 여기게 되면 水蠶과 火鼠³⁾에서도 다 살수 있음을 알겠다.

나는 일찍이 고요히 아무 생각이 없이 이곳에 부처 살며 마음을 만물의 밖에 부친다. 얼어버린 야고도 녹일 듯한 추위에도 그 차가움을 배풀 수 없고, 금속을 녹일 듯한 더위도 그 독함을 놓을 수 없으니, 백세 이상 된 노인을 어찌 죽히 말하랴. 저 어리석은 노인은 애당초 이를 알지 못하지만, 다만 水蠶과 火鼠가 그 가운데 사는 것 같이, 우뚝이 그것을 감수할 뿐이다. (嶺南天氣卑濕, 地氣蒸溽, 而海南爲甚. 夏秋之交, 物無不腐壞者. 人非金石, 其何能久. 然僂耳頗有老人, 年百餘歲者, 往往而是, 八九十者不論也. 乃知壽夭無定, 習而安之, 則水蠶火鼠, 皆可以生. 吾嘗湛然無思, 寓此覺於物表, 使折膠之寒, 無所施其冽, 流金之暑, 無所措其毒, 百餘歲豈足道哉. 彼愚老人者, 初不知此, 特如蠶鼠生于其中, 兀然受之而已.)⁴⁾

습한 날씨와 김이 오르고 찌는 듯한 地氣 등으로 인해 만물이 부패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해남도의 자연환경을 피력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도 100세 이상 된 노인들이 많다. 다만 사람이 습관이 되어 환경을 편하게 여길 수 있다면 더 심한 곳에서도

1) 이상 拙稿, 《蘇軾詩研究》, 21-36쪽. 王水照, 《蘇軾》, 3, 6, 10-12장. 참조.

2) 王水照, 《蘇軾》, 180쪽.

3) 水蠶: 누에의 한 가지로, 그 고치에서 켜 실은 불에도 타지 않는다고 한다. 火鼠: 상상의 동물로 남방의 火山 속에서 살며 털은 火浣布를 만든다고 한다. 《拾遺記》, 《神異經》 등 신화전설에 나온다.

4) 《書海南風土》, 《蘇軾文集》, 卷71, 2275쪽. 元符元年(1098년, 63세) 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 편지글에서 동파는 당시 海南島의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이곳은 음식에는 고기가 없고 병에 걸려도 약이 없으며, 거처함에 방이 없고 밖에 나가도 벗이 없으며, 겨울에는 석탄이 없고 여름에는 찬 샘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쉽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체로 모두 없을 뿐입니다. 오직 한가지 다행스런 것은 심한瘴氣(남방지방에서 사람이 쉽게 걸리는 병의 기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래 아들 과(遇)와 함께 띠풀과 서까래를 몇 개 엮어 초가집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다만 비바람을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또한 노력과 경비 이미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십 수명의 학생이 도와 일하여 몸소 흙탕물 속에서 수고하니 부끄러움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몸이 있어 조물주에게 부치어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 가다가 구덩이를 만나게 되면 멈추니, 안될 것은 없습니다. 벗이 이것을 알아준다면 근심을 면할 수 있겠지요.

(此間食無肉, 病無藥, 居無室, 出無友, 冬無炭, 夏無寒泉, 然亦未易悉數, 大率皆無耳. 惟有一幸, 無甚瘴也. 近與小兒子結茅數椽居之, 僅庇風雨, 然勞費亦已不貲矣. 賴十數學生助工作, 躬泥水之役, 愧之不可言也. 尙有此身, 付與造物, 聽其流轉, 流行坎止, 無不可者. 故人知之, 免憂.)⁵⁾

당시 해남도는 고기, 약, 거처할 방,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벗 등 여러 가지가 결핍된 환경이었다. 게다가 겨울에는 석탄이 없고 여름에는 찬 샘물이 없어, 적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배인에게는 더 열악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紹聖 5년(동파 63세) 4월 동파는 핍박을 받아 원래 빌려 살던 관사를 쫓겨 나와 따로茅屋을 지었다. 이때 현지 학생 십여 명이 집 짓는 것을 도와주어 완성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집을 枕榔庵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에 살았다. 여기서 “尙有此身, 付與造物, 聽其流轉, 流行坎止, 無不可者”라 하여 그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사는 자세를 지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난관에 봉착한 때 그의 思考가 넓고 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타의 모범이 될 만하다.

이렇듯 당시의 문장에는 열악한 환경의 묘사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동파의 폭넓은 사유와 끈끈한 의지가 배어나고 있다.

Ⅲ. 蘇東坡의 海南島 流配詩 探索

黃庭堅은 동파의 이 시기 문학을 평해 “東坡의 嶺外(惠州와 海南島)의 문학은

5) 〈與程秀才三首·其一〉, 《蘇軾文集》, 卷55, 1627쪽, 元符元年(1098년, 63세) 초여름에 作.

그것을 읽으면耳目이 총명하게 되어, 마치 淸風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같다. (東坡嶺外文字, 使人讀之耳目聰明, 如淸風自外來也.)⁶⁾라고 하여, 당시 동파의 문장을 읽으면 정신이 버쩍 뜨이고 맑은 바람이 들어오는 듯 하다고 극찬하고 있다. 또한 아우 蘇轍은 “유독 시 짓기를 좋아하였는데, 精華가 深妙하여 老人의 쇠하고 고달픈 기운이 보이지 않는다(猶獨喜爲詩, 精深華妙, 不見老人衰憊之氣)”⁷⁾라고 하여, 동파의 海南島 시에서 늙을수록 深妙한 精華를 볼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한편 동파 자신은 일생 새 지방의 유배생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心似已灰之木,	내 마음 이미 재가 된 나무와 같고
身如不繫之舟.	몸은 매이지 않고 흘러가는 배와 같다.
問汝平生功業,	너(동파 자신)에게 평생의 功業을 묻는다면
黃州惠州儋州.	그것은 黃州, 惠州, 儋州의 유배시거라네. ⁸⁾

이는 동파가 만년 북쪽으로는 복귀 도중(徽宗 建中靖國 元年 1101년, 66세) 金山을 지날 때 자신의 초상화에 대해 지은 題畫詩이다.

1-2구는 莊子사상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임종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심경을 “이미 재가 된 나무 같다”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功業에 대한 갈망은 이미 없어지고 청년의 豪氣도 사라졌지만, 아무런 욕심과 걱정근심이 없이 침착하게 가라앉아 평정한 심경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몸은 매이지 않고 흘러가는 배와 같다”는 것은 몸은 매인 것 없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며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바로 인생의 부침을 자연스런 물결의 흐름에 맡겨 버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일체의 속박을 벗어나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자신의 유배생애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았다.

이어서 지난 날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던 (지금의 호북성) 黃州, (광둥성) 惠州, (해남성) 海南島 등 유배지가, 이제 와서 회상하니 역설적으로 가장 큰 문학적 功業의 공간이었다고 그 총괄적 느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그의 문학 환경론을 설파한 것으로 환경이 곤궁하면 곤궁할수록 문학은 찬란하게 빛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만큼 능멸할 수 없는 뜻깊은 내면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魏慶之, 《詩人玉屑》, 315쪽.

7) 蘇轍, 〈子瞻和陶淵明詩集引〉, 王水照, 《蘇軾》, 132쪽.

8) 〈自題金山畫像〉, 《蘇軾詩集》, 卷48, 2641쪽.

九死南荒吾不恨, 남쪽 황무지에서 九死一生한 귀양살이 내 원망하지 않으리.
 茲遊奇絕冠平生. 이번 놀이 기이한 절경 평생에 으뜸이더라.⁹⁾

여기서 그는 자신의 유배인생에 대한 애착과 북쪽 中原으로 복귀하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다. 해남도 유배생활을 평생 최고의 기이한 절경유람이라고 총평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유배지로 내 몰아 버린 政敵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도 아랑곳없이 자신의 기개를 마음껏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해남도 유배에 대해 어떠한 유감도 나타내지 않았으며, 도리어 그의 시에는 호방한 정서도 드러나고 있다.

1. 中原復歸意志와 제2의 고향감정

여기서 증원복귀의지란 동파가 '해남도 유배지에서 벗어나 고향이나 정치중심지(수도)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故山不可到, 고향산천 돌아갈 수 없어
 飛夢隔五嶺, 날아가는 꿈속에서조차 五嶺이 막는구나.¹⁰⁾

유배지에 매여 있는 몸이라 동파는 현실세계에서는 고향엘 갈 수 없으나, 때때로 고향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꿈을 꾸어도 꿈속에서조차 험난한 五嶺이 장애물이 되어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孤島의 유배라는 공간적 장벽이 정신까지 침투하였으니, 그만큼 정치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 핍박까지 있었다는 반증이겠다. 이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꿈속에서조차 갈 수 없는 격절감의 한 표현이다.

還鄉亦何有, 고향 돌아가는 일 또한 어찌 어려우리?
 暫假壺公龍, 잠시 壺公의 龍¹¹⁾을 빌려 타고 가면 될 것을.

9) 〈六月二十日夜渡海〉, 《蘇軾詩集》, 卷43, 2366쪽.

10) 〈和陶雜詩〉, 《蘇軾詩集》, 卷41, 2273쪽.

11) 《蘇軾詩集》, 권41, 2248쪽, 施註, 參照. '壺公의 龍'은 《後漢書·費長房傳》에 나오는 故事이다. 그 內容을 要約해서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약을 파는 어느 할아버지(神仙)가 있었는데, 그는 약국의 끝에 하나의 병(壺)을 걸어 놓았는데 장사가 끝나면 그 병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費長房이 이층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기이하게 여기며,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병 속으로 들어갔다. 어느덧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그 할아버지는 長房이 사직하고 돌아가려 하자

蛾眉向我笑, 고향의 峨嵋山은 나를 향해 미소짓고
 錦水爲君容, 탁금강은 그대 위해 용모 단장하리.¹²⁾

21세 과거시험을 위해 出鄕한 이후, 母親喪과 父親喪 두 차례 밖에는 귀향하지 못하고 평생을 벼슬살이에 따라 곳곳을 전전한 나그네였던 그였지만, 이렇듯 마음속 한 부분에는 평생 고향을 잊지 못하였으며 고향의 산수를 그리고 있었다.

여기서 고향에 돌아갈 자유가 없는 유배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면세계에서는 돌아가는 일이 쉽다고 발상을 전환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현실세계에서 못 이룬 歸鄕을 동파는 想像의 세계로 진입하여, 壺公의 대 지팡이(竹杖)를 타고 날아가면 된다고 자위하고 있다. 더욱이 고향의 峨嵋山은 자신을 기다리며 미소짓고 있을 것이며, 濯錦江은 아우 蘇轍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을 하리라고 상상하고 있다. 우리 형제가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듯, 고향의 산과 강도 우리를 환영할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에게는 의식적으로 타향일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고향처럼 편하게 해 주는 곳을 「제2의 故鄕」으로 여기는 心境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平生學道眞實意,	평생 道를 배우는 참된 뜻이
豈與窮達俱存亡.	어찌 窮達에 따라 있고 없어지랴?
天其以我爲箕子,	하늘이 나를 이 시대의 箕子로 삼으니
要使此意留要荒.	요컨대 이 뜻 이 먼 변방에 남기리.
他年誰作輿地志,	훗날 누가 지리서를 쓸 것인가?
海南萬里眞吾鄕.	만리 먼 이곳 海南島가 진정 나의 고향. ¹³⁾

동파가 配所 儋州로 향하는 여정에서 지은 시이다. 작자는 道를 배우는 참된 뜻은 역경(窮)과 영달(達)에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箕子는 殷나라의 賢臣으로, 殷나라가 망한 후 周武王에 의해 朝鮮 땅에 봉하여졌다. 동파는 옛날 箕子가 朝鮮에 가서 백성들을 교화시켰듯이, 자신도 이 海南島에서 箕子같이 백성을 교화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長房에게 한 대나무 지팡이(竹杖)를 주며 말하였다. “이것을 타고 가는 대로 맡기면 곧 저절로 도착할 것이다. 도착하게 되면 이 지팡이를 葛陂 못 가운데 던져라.” 長房이 지팡이를 타고 순식간에 돌아와서 곧 지팡이를 못에 넣고 돌아보니, 바로 그 지팡이가 龍이었다.)

12) 〈次前韻寄子由〉, 《蘇軾詩集》, 卷41, 2248쪽

13) 〈吾謫海南, 子由雷州, 被命即行, 了不相知, 至梧乃聞其尚在藤也, 且昔當追及, 作此詩示之〉, 《蘇軾詩集》, 卷41, 2243쪽. 紹聖4년(1097년, 62세) 5월 동파가 海南島 儋州로 향하는 도중 梧州에서 作.

이어서 마음으로 완전한 해남도 사람이 되어 '자신의 고향은 海南島'라고 다짐하면서, 훗날 누군가가 지리서를 쓰게 되면 자신의 海南島에서의 행적을 기록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것도 현지에 적응하여 살고자 하는 심경의 한 표현이다.

借我三畝地, 三畝 땅을 빌어 가지고
 結茅爲子隣, 초가집 지어 그대와 이웃하겠네.
 駛舌倘可學, 이 지방 사투리를 배울 수 있다면
 化爲黎母民, 이 黎母 땅의 백성이 되리라.¹⁴⁾

작자는 海南島 땅에서 초가집 「載酒堂」을 짓고 현지백성들과 이웃하여 살고자 의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해남도 방언을 배울 수 있다면 진정 이 해남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유배 현지에 적응하는 자세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天涯已慣逢人日, 하늘가 먼 타향에서 人日(5월 7일)을 여러 번 맞이 했으니
 歸路猶欣過鬼門, 귀로엔 험한 鬼門關도 오히려 기쁘게 살아서 지나리.
 三策已應思賈讓, 이전 세 가지 治水방책 이미 채용되니 賈讓 생각나고
 孤忠終未赦虞翻, 외로운 충성에도 虞翻¹⁵⁾처럼 사면되지 않는구나.¹⁶⁾

여러 해 전 자신의 치수계획이 이제서야 채용된 것에 대한 감개와 하루빨리 유배가 풀려 중원으로 돌아가리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가 사면되지 못해 유배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虞翻의 고사를 빌어 표현하고 있다.

이제 徽宗의 즉위로 神宗의 처 尙氏가 垂簾聽政을 하게되어 政界에 판도변화가 일어나, 동파는 海南島 유배를 마치고 廉州安置로 옮기게 된다. 그리하여 서서히 의식 속에 잊으려 했으나 잊혀지지 않던 中原復歸意志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계의 변화에 의해 결국 육지로 향하게 된다. 다음 시는 바다를 건너갈 즈음에 지은 것이다.

餘生欲老海南村, 여생을 海南島 촌에서 늙으려 했는데

14) 〈和陶田舍始春懷古二首·其二〉, 《蘇軾詩集》, 卷41, 2281쪽.

15) 賈讓: 황하의 治水로 유명한 東漢의 名臣.

虞翻: 정치하기로 유명한 삼국시대 윗나라 사람. 「王註: 虞翻은 성격이 疎直하며 자주 醉態가 있어, 孫權이 화가 나서 그를 交州로 추방했다. 남쪽에서 10여 년 있다가卒했다.」(《蘇軾詩集》, 2343쪽, 註)

16) 〈庚辰歲人日作·時間黃河已復北流, 老臣舊數論此, 今斯言乃驗, 二首·其一〉, 《蘇軾詩集》, 卷43, 2342쪽.

帝遣巫陽招我魂¹⁷⁾. 하늘 임금이 巫陽을 보내 내 혼을 부르네.
 杳杳天低鷓沒處, 아득히 하늘 끝 송골매 사라지는 곳.
 靑山一髮是中原, 머리카락같이 아득한 靑山, 그 곳이 바로 中原.¹⁸⁾

동파는 해남도에서 늙으려 했는데, 조정이 자신을 사면하고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여기서 天帝는 조정을 가리키고, 혼을 부른다는 것은 조정으로의 소환을 비유한다. 저 하늘 끝으로 송골매가 사라지고, 아득하게 바라보이던 곳이 바로 자신이 향하고 있는 중원 땅이다. 감격스러움이 언외에 전해지고 있다.

동파의 中原(고향 혹은 정치중심지)으로의 復歸意志와 第2의 고향감정의 두 가지 樣相은 二重奏의 모순구조를 보이고 있다. 곧 어느 시점에서는 강렬한 중원복귀의지를 보이다가도, 다른 시점에서는 유배현지에 머무르면서 동화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유배지에의 적응노력인 「제2의 고향감정」이 비교적 지속성을 가지며 주된 면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치상황의 변화로 중원복귀가 실현되자 그 기쁨 또한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다.

2. 隔絕心境과 超脫心境

〈瓊州와 儋州 사이를 다니며, 가마에 올라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다음 시구를 얻다. '모든 산에는 번쩍번쩍 비늘갑옷같이 산천초목 움직이고/ 일만 골짜기에는 생황이나 종소리 같은 비바람 소리 썩썩' 깨어나서 보니 맑은 바람과 소낙비를 만나, 이 몇 구를 희롱 삼아 짓는다.(行瓊儋間, 肩輿坐睡, 夢中得句云, '千山動鱗甲, 萬谷酣笙鐘, 覺而遇清風急雨, 戲作此數句)〉라는 긴 제목의 시를 보자.

四州環一島, 네 고을이 섬(海南島)을 뺨 돌아 있고
 百洞蟠其中, 백 개의 마을이 그 가운데 서려 있다.
 我行西北隅, 나는 서북쪽 모퉁이를 가는데
 如度月半弓, 마치 반달모양으로 지나가는 듯.
 登高望中原, 높이 올라 中原 쪽을 바라보니
 但見積水空, 다만 넓은 바닷물과 하늘만 보인다.
 此生當安歸, 내 인생은 마땅히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四顧眞途窮, 사방을 돌아봐도 정말 길이 다 막혀있구나.¹⁹⁾

17) 楚辭〈招魂〉에 屈原의 영혼이 구천에 떠도는 것을 天帝가 불쌍히 여겨 巫陽에게 그 영혼을 불러오라고 명령한 부분이 있음. 近藤光男, 《蘇東坡》, 340쪽, 참조.

18) 〈澄邁驛通潮閣二首, 其二〉, 《蘇軾詩集》, 卷43, 2365쪽. 元符三年(1100년, 65세)에 작.

이는 동파가 海南島에 도착한 이후 瓊州를 지나 謫所 儋州로 가는 도중에 지은 시이다. 당시 海南島는 瓊州, 崖州, 儋州, 萬州의 네 고을이 해남도의 4주변에 빙 둘러 있고, 그 가운데 백 개의 마을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국이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흡사하다. 그는 먼저 섬의 서북쪽으로 반달모양의 행로를 돌아 儋州로 가고 있다. 도중에 높은 곳에 올라 북쪽의 中原을 바라보니, 보이는 것은 바닷물과 하늘뿐이다. 바로 여기서 ‘塗窮의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인생의 막다른 곳에 봉착한 느낌이다.

바다 건너 멀리 이 海南島라도 自意로 왔다면 또 돌아갈 수 있다는 기약이 있기 만 하다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絶景을 구경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他意에 의해 이곳에 온 것이고, 더욱이 海南島는 당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 마음이 편하기 어려웠다.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생존하는데는 자신의 發想의 轉換이 필요했다.

내가 처음에 해남도에 유배 왔을 때, 돌아보니 하늘과 바다가 끝이 없어, 처연히 슬퍼 하여 말했다. ‘언제나 이 섬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 뒤에 생각하였다. ‘천지는 쌓인 물(積水) 가운데 있고, 九州(대륙)는 큰 바다 가운데 있으며, 中國은 작은 바다가운데 있으니, 생물 치고 섬에 살지 않는 것이 어디 있으리요?’

대야 물을 땅에 얹어 겨자씨가 물에 뜨게 되면, 개미는 그 겨자씨에 붙어 망연히 건널 바를 모른다. 얼마 후 물이 마르자 개미는 곧장 떠나가며 그의 동료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마터면 다시는 그대와 만나지 못할 뻔했구려.’ 우러러보고 굽어보는 짧은 시간에 두 수레가 아울러 다니면서 팔방에 통하는 길이 있음을 어찌 알리요? 이것을 생각하니 결겉 웃을 만하다.

(吾始至南海, 環視天水無際, 悽然傷之, 曰, “何時得出此島也?” 已而思之, 天地在積水中, 九州在大瀛海中, 中國在四海中, 有生孰不在島者? 覆盆水於地, 芥浮於水, 蟻附於芥, 茫然不知所濟, 少焉, 水涸, 蟻即徑去, 見其類, 出涕曰, ‘幾不復與子相見’, 豈知俯仰間之有方軌八達之路乎? 念此可以一笑.)²⁰⁾

처음 海南島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에 갇혀 있다고 인식하여 이 섬을 벗어나고자 갈망했다. 그러나 얼마 후 ‘육지는 큰 바다 가운데 있고, 중국도 동서남북의 네 바다 가운데 있듯, 모든 생물은 섬에 살고 있다’고 발상을 전환하고 있다.

이어서 개미의 사례를 빌어, 자신의 현 위상과 장래에 대한 예측을 표현하고 있

19) 《蘇軾詩集》, 卷41, 2246쪽, 紹聖4년(1097년, 62세) 7월 作.

20) 《試筆自書》, 《蘇軾文集》, 蘇軾佚文彙編, 卷5, 2549쪽.

다. 땅에 얽어진 대야 물에 겨자씨가 물에 뜨자, 개미는 위기의식으로 겨자씨에 붙는다. 얼마 후 물이 마르자 이제 개미는 살아 險地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듯 순간의 위기만 잘 지나면 살 길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육지가 바다라는 개인식과 위기에 봉착했던 개미의 이야기를 통한 發想의 轉換은 동파가 바다 멀리 유배된 隔絶空間에서 답답함과 괴로움을 超克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되고 있다.

我本海南民, 나는 본래 海南島사람으로
寄生西蜀州. 西蜀州에 부처 살았네.²¹⁾

이는 海南島유배를 마치고 돌아가며 지은 시이다. 사실상 본래 동파는 西蜀사람이며, 해남도에 귀양와 있었는데, 거꾸로 자신이 본래 해남도 사람인데 西蜀에 부처 살았다고 하고 있다. 이것도 심리의 평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다.

我少即多難, 나는 젊어서부터 난관이 많아
遭回一生中, 일생을 불우하게 지냈다.
百年不易滿, 백년 인생 다 살기 쉽지도 않건만
寸寸覺強弓, 순간 순간을 역센 활 당기듯 힘들게 살아왔다.
老矣復何言, 늙었구나! 다시 무슨 말을 할까보나.
榮辱今兩空, 이젠 榮辱이 모두 텅 비었네.
泥洹尙一路, 아직 涅槃의 길하나 있으니
所向餘皆窮, 이로 향하는 길 외에는 모두 막혔다.²²⁾

이는 佛敎의 사유를 풍기고 있다. 그는 자신이 젊어서부터 난관이 많아 일생을 불우하게 살아왔다고 여기고 있다. 백년인생에서 매 순간 역센 활을 당기듯 아주 어렵게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제 늙어, 그간의 榮光과 汚辱은 모두 텅 비고 涅槃(죽음 혹은 번뇌가 끊어진 해탈의 경지)으로 향하는 길만 남아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早知臭腐卽神奇, 일찍이 알았었네. 더럽고 썩은 것이 神奇함을.
海北天南總是歸, 바다 북쪽 하늘 남쪽 모두 돌아갈 곳이라.
九萬里風安稅駕, 구만리 바람 타고서 편하게 멍에를 푼다.
雲鷲今悔不卑飛, 구름 타고 날아기는 봉새가 이제야 낮게 날지 않았음을 후회한다.²³⁾

21) 〈別海南黎民表〉, 《蘇軾詩集》, 卷43, 2362쪽.

22) 〈次前韻寄子由〉, 《蘇軾詩集》, 卷41, 2248쪽.

해남도 유배를 벗어나 북쪽으로의 복귀 도중 지은 시이다. “더럽고 썩은 것”은 혼탁한 현실세계를 의미한다. 그는 ‘더럽고 썩은 현실세계에 바로 神奇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찍 알았었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세계에 이상향이 존재한다는 말과 통한다. 그리고 하늘남쪽이나 바다 북쪽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상상의 세계에 진입하여 현실을 초월하고 있다.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鵬새가 이제서야 낮게 날지 않았음을 후회한다”는 것은 드높은 이상을 추구하여 크고 高遠하게 살려고 하다가 현실에서의 소소한 문제들을 등한시하였다는 의미이다. 곧 悔恨이 섞인 자기 인생에 대한 애착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 해남도 유배지가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 있는 절망적인 격절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섬을 벗어나고 싶어했다.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이 생활환경, 경제적 문제, 그리고 交友 등이 모두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살아나아가야 했다. 苦惱의 主體가 이제는 克服의 주체가 되어야 했다. 이에 발상을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전환은 유배의 고통을 초탈심경으로 승화시키게 하였다.

3. 陶淵明에 대한 흠모와 一體感의 표현

당시 그는 東晉과 宋의 교체기 隱逸詩人 陶淵明이라는 흠모하는 하나의 대상인 물을 설정하여 그와 닮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동일화 양상’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동파는 인생의 중반기 이후 줄곧, 전원에 돌아가 자연과 융화되며 술과 벗삼아 사는 陶淵明의 인품과 시풍을 흠모하였다. 해남도에서 동파의 도연명에의 동일화는 和陶詩(도연명시의 韻에 맞추어 지은 시)로 구체화되어, 도연명에의 연모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 외에 <歸去來集字十首> 등 도처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도연명과 더불어 柳宗元을 숭배하고 배우는 자세도 표현되어 있다. 그는 “몸에 <陶淵明集>을 가지고 다니며 울적함을 풀었으니, 바로 이에 힘입은 것이다(隨行有陶淵明集, 陶瀉伊鬱, 正賴此耳)”(<答程全父推官>)라고 하였다. 후에 또 해남도에서 黎子雲에게서 <柳宗元文集>을 빌렸다.(許凱, <彥周詩話>) 그는 이 두 권의 책을 「남방에 옮겨 가서의 두 벗(南邊二友)」로 삼고 있다.<與程全父書>24) 이제 그의 화도시를 통해 도연명에의 동일화 양상을 살펴보겠다.

23) <次韻郭功甫觀予畫雪雀有感二首, 其一>, <蘇軾詩集>, 卷45, 2454쪽.

24) 王水照, <蘇軾>, 141쪽, 재인용.

坎坷識天意, 귀양은 것은 진실로 하늘의 뜻
 淹留見人情, (이 곳에) 머물러 인정의 따뜻함을 보게 된다.
 但願飽秬稌,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은 쌀밥 실컷 먹을 수 있도록
 年年樂秋成, 해마다 풍성한 추수를 즐기어 맞이하는 것이다.²⁵⁾

동파의 유배는 기실 政敵이 모함한 것이나, 그는 도리어 이를 “하늘의 뜻”이라고 하고 있다. 사람을 끝내 미워하지 않는 선량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따뜻한 인정을 느끼고 배불리 쌀밥 먹을 수 있도록 풍년을 바라며, 담담한 마음으로 사는 운명 순응적인 소박한 심경이 나타나고 있다.

嗟我與先生, 아! 나와 陶先生님(도연명)은
 所賦良奇偏, 타고난 기질이 기이하고 남달랐네.
 人間少宜適, 세속의 인생사와는 맞지 않아
 惟有歸耘田, 전원엔 돌아가 경작함이 유일한 길이네.
 我昔墮軒冕, 전에 나는 벼슬살이에 빠져
 毫釐眞市塵, 터럭 끝 만한 것에도 정말 장사꾼같이 利慾 다투었네.
 困來臥重裯, 피곤하여 여러 겹 담요 깔고 누워있을 때는
 憂愧自不眠, 근심과 부끄러움으로 잠 못 이루었지.
 如今破茅屋, 이제 무너진 초가집에 거처하니
 一夕或三遷, 하룻밤에도 세 번이나 자리를 옮겨야 한다.
 風雨睡不知, 이제는 비바람에 노란 낙엽이 밤새 쌓여도
 黃葉滿枕前, 세상모르고 쿵쿨 잠에 빠져든다.
 寧當出怨句, 어찌 생활이 어렵다고 원망스런 시구 지어
 慘慘如孤烟, 외로운 연기처럼 참담하게 여기리요?
 但恨不早悟, 다만 한스럽기는 일찍 깨닫지 못한 것
 猶推淵明賢, 여전히 淵明의 현명함을 높이 받들 뿐.²⁶⁾

여기서는 먼저 동파 자신이 세속과 맞지 않는 점에서 기질이 연명과 비슷하기에, 전원엔 돌아가 농경생활을 함이 유일한 길이었다고 회한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 못해 이곳으로 유배 왔다는 말의 다름 아니다. 이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예전 자신은 벼슬살이에 빠져 터럭 끝 만한 작은 일에도 장사꾼처럼 따졌었다. 이 일을 생각하면 근심과 부끄러움으로 잠 못 이를 지경이었다.

25) 〈和陶九日閑居, 并引〉, 《蘇軾詩集》, 卷41, 2259쪽.

26) 〈和陶怨詩示龐鄧〉, 《蘇軾詩集》, 卷41, 2271쪽. 陳英姬, 〈東坡의 政治生涯와 文學과의 關係 試論 — 和陶詩를 中心으로〉, 中國語文學, 제10집, 90-91쪽. 宋九龍, 〈蘇東坡和陶淵明詩之比較研究〉, 173쪽. 車柱環, 〈淵明의 怨詩와 東坡의 和作〉, 134-135쪽.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와, 이제는 낡은 초가집에 살고 있지만 원망이 없고 더욱이 평정의 심경으로, 歸隱한 淵明을 마음속으로 받들며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동파의 心境은 불평정과 평정이 강약의 대립을 보이며 교차하고 있다. 그리하여 淵明을 모범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평정·달관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和陶詩를 통해 동파가 획득한 平靜·達觀의 心境을 살펴보겠다.

呼我釣其池, 나를 불러 연못에서 낚시를 드리우면
人魚兩忘返, 사람과 물고기 모두 돌아가길 잊는다.²⁷⁾

여기서 동파는 자신이 낚시질할 때의 物我相忘하는 집중의 경지를 묘사하고 있다.

萬劫互起滅, 萬劫은 서로 일어났다가 滅하는데
百年一躑躅, 백년을 한결같이 주저하며 살아왔다.
漂流四十年, 표류하기를 사십 년
今乃言卜居, 이제서야 거처를 점쳐서
且喜天壤間, 하늘과 땅 사이
一席亦吾廬, 한 자리가 내 오두막임을 또한 기뻐한다.²⁸⁾

그는 일생을 주저하면서 살았으며 그 중에 사십 년을 벼슬살이로 표류하다가, 지금에야 살 곳을 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하늘과 땅 사이 한 자리가 자신의 오두막임을 기뻐하고 있다. 조금도 불평의 심경이 없이 평범하게 생활할 뿐 그 밖의 世事는 잊고 지내고 있다.

莫從老君言, 老子的 말 따르지 말고
亦莫用佛語, 또한 佛家語를 쓰지 마라.
仙山與佛國, 仙山과 佛國
終恐無是處, 끝내 이러한 곳은 없으리라.
甚欲隨陶翁, 아주 陶淵明 노인을 따라
移家酒中住, 집을 옮겨 술 가운데 살고 싶어라.²⁹⁾

일찍이 동파는 佛家思想과 道家思想에 심취하여 그 정수를 터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가와 도가사상에서 추구하는 理想郷, 곧 佛國과 仙山은 애당초 존재하지

27) 〈和陶田舍始春懷古二首, 其一〉, 《蘇軾詩集》, 卷41, 2280쪽.

28) 〈和陶和劉柴桑〉, 《蘇軾詩集》, 卷42, 2311쪽.

29) 〈和陶神釋〉, 《蘇軾詩集》, 卷42, 2307쪽.

않을 것이라고 넌지시 추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리리 陶淵明을 따라 집을 옮겨 술 가운데 살고 싶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는 약간의 농담적인 분위기도 엿보이지만, 그가 자연과 융합하고 술을 즐기던 陶淵明의 인생태도를 귀결처로 삼고자 의도했음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동파는 평정치 못한 심경과 평정스런 심경의 상태가 강약이 바뀌며 서로 교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陶淵明을 스승으로 삼아, 평정의 분위기와 담담한 표면 속에, 깨끗한 동파의 내면세계가 감추어져 있다.

4. 海南島 風情의 묘사

동파는 적지 않은 시에서 해남도 風情의 美를 표현하고 있다.

아우 蘇轍은 해남도시기의 동파에 관하여, “날마다 감자와 토란을 먹으며, 좋은 집과 맛있는 음식에 대한 생각은 가슴에 두지를 않았다(日啖薯芋, 而華屋玉食之念, 不存於胸中)”(《子瞻和陶淵明詩集引》)고 말하고 있다. 동파는, “하늘에 드리운 암무지개는 구름 끝에 걸리어 땅에 닿고/ 상쾌한 솟바람은 바다에서 불어온다(垂天雌霓雲端下, 快意雄風海上來)”(《儻耳》)라 하여, 비가 온 후 무지개가 높은 하늘에 걸리어 있고, 해상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화, 여지(荔枝), 빈랑(檳榔), 야자, 용안(龍眼), 목화꽃, 섬엄나무 등 남방 과일과 식물들을 시의 재료로 끌어들이어 시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다.³⁰⁾

總角黎家三四童, 총각머리 땀은 黎族 서너 아이
口吹芡葉送迎翁, 입으로 파피리 불며 이 늙은이 맞이하고 보낸다.
莫作天涯萬里意, 하늘가 아득히 만리 먼 곳에 있다는 생각 갖지 말자꾸나.
溪邊自有舞雩風, 시냇가엔 절로 舞雩에서 바람쐬던 孔子와 曾點같은 한적한 風情
있으니.³¹⁾

일상생활 가운데서 신선한 생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있다. 해남도 원주민 서너 아이가 파피리를 불며 자신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다. 그는 몸은 天涯萬리에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그는 옛날 孔子와 曾點이 舞雩에서 바람쐬던 것에 비유하며, 시냇

30) 이상, 王水照, 《蘇軾》, 132, 139쪽.

31) 《被酒獨行, 徧至子雲, 威, 先覺四黎之舍三首, 其二》, 《蘇軾詩集》, 卷42, 2323쪽.

가에서 한적함을 즐기고 있다.

北船不到米如珠, 북에서 배 오지 않으면 쌀값은 진주 값
 醉飽蕭條半月無, 반달이나 썰렁하니 취하고 배부른 적 한 번도 없다.
 明日東家當祭竈, 내일은 동쪽 이웃집 부엌 제사 지내는 날이라
 隻鷄斗酒定膾膾, 닭과 술 내게도 나눠 보내 주리라.³²⁾

동파는 생활이 곤란해 배가 고플 정도로 양식마저 없다. 술에 취하는 경우는 더욱 없다. 술을 마시고 싶었으나 없어서 마시지 못하던 차에, 내일 이웃집의 부엌제사를 빌어 술을 자신에게도 보내 주리라는 인정미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동파가 현지의 백성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음과, 海南島 땅의 훈훈한 人情이 배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稍喜海南州, 내가 점점 해남도를 좋아함은
 自古無戰場, 예로부터 전쟁터가 없기 때문이다.
 奇峰望黎母, 기이한 봉우리 黎母山을 바라보며 생각하니
 何異嵩與邨, 어찌 嵩山, 北邨山과 다르랴
 飛泉瀉萬仞, 샘물이 날리어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舞鶴雙低昂, 춤추는 학은 쌍쌍이 오르내리며 난다.
 分流未入海, 흘러내려도 바다로 가지 않아
 膏澤彌此方, 아름다운 못이 이 지방에 가득하다.
 芋魁尙可飽, 토란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無肉亦奚傷, 고기 없어도 무방하리.³³⁾

해남도에는 예로부터 전쟁터가 없고, 기이한 봉우리와 폭포, 쌍쌍이 나는 학, 연못 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다. 또 이에는 이곳 黎母山이 중원의 嵩山과 다름이 없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다. 여하간에 동파는 이곳이 점점 더 좋은 환경임을 느끼게 된다. 비록 고기가 없더라도 맛있는 토란이 있으니 기쁜 일이다.

이처럼 해남도에 거주하며 감자, 토란 등 먹을 것, 소년들의 파피리 부는 정경, 인정미 등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는 근거에는 그의 기본적인 마음자세에 다음에 예시 되는 莊子적인 '忘我'의 상태가 있기에 더욱 가능했으리라 추정된다. "비긴 햇살이 좁은 틈을 비추자/ 비로소 공중에 티끌이 있음을 아네./ 가벼운 바람이 모든 구멍에

32) 〈縱筆三首, 其三〉, 《蘇軾詩集》, 卷42, 2328쪽.

33) 〈和陶擬古九首, 其四〉, 《蘇軾詩集》, 卷41, 2261쪽.

서 부니/ 누가 (내가) 내 몸을 잊었음을 믿으라(斜日照孤隙, 始知空有塵。微風動衆竅, 誰信我忘身.)³⁴⁾

이와도 내재적 연계가 있는 한적한 생활의 정취를 아래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5. 閑適한 生活情趣

동파는 이 시기 「謫居三適」이라 부르는 연작시를 지어 자신의 한적한 정취를 표현하고 있다. 〈旦起理髮〉³⁵⁾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빗는 정취를 읊었고, 〈夜臥濯足〉³⁶⁾에서는 밤에 누워서 발을 씻으며 느낀 정취를 읊고 있다. 여기서는 〈午窓坐睡〉를 보자.

蒲團蟠兩膝,	방석에 두 무릎을 모으고 앉아
竹几閣雙肘.	대나무 책상에 두 팔꿈치 구부리고 잠에 드네.
此間道路熟,	이 사이 꿈길에 깊이 들어
徑到無何有.	곧바로 無何有의 세계에 도달했네.
身心兩不見,	몸과 마음 다 보이지 않고
息息安且久,	쉬익 쉬익 숨소리 내며 오래 편안히 잠들었네.
睡蛇本亦無,	잠잘 때의 뱀이라 일컫는 번뇌 본래 또 없는데
何用釣輿手,	어이하여 (번뇌를 없애는) 뱀 잡는 갈고리와 손을 쓰라.
神凝疑夜禪,	정신집중은 마치 밤에 도달한 參禪의 경지와 같고
體適劇卯酒,	몸의 편안함 식전 모주 마셔 취한 것 같네.
我生有定數,	내 인생 일정한 數 있어
祿盡空餘壽.	벼슬 다하니 長壽의 길 있어라.
枯楊不飛花,	말라버린 버드나무라 버들 꽃 날리지 않는 듯하지만
靑澤回衰朽.	임금의 은택은 쇠한 늙은이의 몸 회생시켜 주네. ³⁷⁾

이 시는 창가에 앉아 낮잠을 자면서 꿈 속 '無何有의 세계'로 진입함을 묘사하고 있다. 번뇌가 없어졌으니 번뇌를 잡는 갈고리도 필요 없다. 정신은 참선하는 것처럼 집중되고, 벼슬길이 다 끝나니 장수의 길이 앞에 있다. 번뇌가 사라진 상태의 한적함과 임금이 자신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기대감, 그리고 깨끗한 자아를 보존하겠다는

34) 〈和陶雜詩十一首, 其一〉, 《蘇軾詩集》, 卷41, 2272쪽.

35) 〈謫居三適, 旦起理髮〉, 《蘇軾詩集》, 卷41, 2285쪽.

36) 〈謫居三適, 夜臥濯足〉, 《蘇軾詩集》, 卷41, 2286쪽.

37) 〈謫居三適, 午窓坐睡〉, 《蘇軾詩集》, 卷41, 2286쪽.

바람도 드러나고 있다.

活水還須活火烹,	칼칼 흐르는 물을 떠다가 다시 활활 타는 불로 달여야겠기에
自臨釣石取深清.	손수 낚시터 바위에 나가 깊고 맑은 물 떠온다.
大瓢貯月歸春甕,	큰 표주박에다 달을 담아 봄 물 단지에 넣고
小杓分江入夜瓶.	작은 국자로 떠온 강물을 떠서 밤중에 병에 붓는다.
雪乳已翻煎處脚,	물거품처럼 보글보글 차가 끓자 찻잎의 다리가 뒤집어진다.
松風忽作瀉詩聲.	솔바람처럼 쇠아 쏟아질 듯 하는 차 달이는 소리
枯腸未易禁三碗,	빈속에 석 잔을 마시고도 그만 마시긴 쉽지 않으니
坐聽荒城長短更.	앉아 황폐한 성에서 울리는 시간 알리는 종소리 듣네. ³⁸⁾

이는 茶의 정취를 생활화하여 생활에의 밀착이란 宋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구체적으로 봄날 강의 낚시터 바위에 가, 칼칼 흐르는 깊은 곳의 맑은 물을 택하여, 큰 표주박에다 달빛을 받은 물을 담아 물 단지에 붓는다. 그리고 작은 국자로 방금 담아 물 단지에 넣은 강물을 떠서 한밤중에 병에 넣는다. 보글보글 차가 끓자 찻잎의 다리가 뒤집어 진다. 솔바람처럼 쇠아 하며 쏟아질 듯한 차 달이는 소리가 난다. 빈속에 석 잔을 마시고도 더 마시고프다.

물의 질, 물을 뜨는 장소, 방법, 시간, 화력조절, 차 끓는 형상과 소리, 그리고 마시는 과정까지 잘 묘사되어 있다. 뛰어난 관찰력과 세밀한 묘사가 일품인 수준 높은 茶詩이다.

楊萬리는 일찍이 이 시의 제2구 “自臨釣石取深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7자 시어에 5가지 의미를 구비하고 있다. ㉠ 물이 맑은 것이요, ㉡ 깊은 곳의 맑은 물이요, ㉢ 돌 아래의 물이라 진흙이 없으며, ㉣ 돌이 낚시터 돌이지 보통의 돌이 아닌 것이요, 그리고 ㉤ 동파가 스스로 물을 길는 것이지 하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³⁹⁾

3, 4구에서는 표주박으로 물을 길으면 물에 비친 달까지도 물독 가운데 붓는 것과 같고, 작은 국자로 병에 물을 담는 것은 강물의 일부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기묘한 생각은 맑고 아름다운 강물과 스스로 즐기는 작자의 경지를 느끼게 한다. 5, 6구에서 차가 끓을 때의 정황과 소리를 묘사하였다.⁴⁰⁾

제7구 “枯腸未易禁三碗”는 唐 노동(盧仝)의 시 〈走筆謝孟諫議寄新茶〉에 典故를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38) 〈汲江煎茶〉, 《蘇軾詩集》, 권43, 2362쪽.

39) 《誠齋詩話》

40) 이상, 王水照, 《蘇軾》, 136쪽.

첫잔에 목구멍과 입술을 축이고, 둘째 잔에 고민을 깨뜨리고, 셋째 잔에 마른 창자를 찾으니, 오직 文字 五千卷이 있다. 넷째 잔에 가벼운 땀이 나며, 평소에 불평스러웠던 일이 다 毛孔을 향해 흩어진다. 다섯째 잔은 살갓과 뼈(肌骨)가 맑아지고, 여섯째 잔에 仙靈에 통한다. 일곱째 잔은 마실 수 없고, 오직 두 겨드랑이로 술술 맑은 바람이 생김을 느끼게 된다.

(一碗喉吻潤，兩碗破苦悶。三碗搜枯腸，惟有文字五千卷。四碗發輕汗，平生不平事，盡向毛孔散。五碗肌骨清，六碗通仙靈。七碗吃不得也，惟覺兩腋習習清風生。)⁴¹⁾

楊萬里는 소식의 이 茶詩 한 구에 5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했는데, 그 관찰력이 周到하고 세밀하다. 廬山の 茶詩에는 茶를 마시는 정취가 배어나고 있는데, 동파의 이 시는 이러한 선인의 茶詩를 근거로 하여 나온 것임을 어렵듯이 느끼게 한다.

이어서 바둑을 관전하는 내용인 〈觀棋〉시를 보자. 이 시의 서문에서, 그는 “예전 홀로 여산(廬山)의 백학관(白鶴觀)을 노닐다가, 관(觀)안의 사람이 모두 문을 닫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늙은 소나무와 흐르는 시냇물 사이에서 바둑두는 소리만 들려 혼연히 기뻐하였다(予素不解棋，嘗獨游廬山白鶴觀。觀中人皆闔戶晝寢，獨聞棋聲於古松流水之間，意欣然喜之。)”라고 회상하고는, 이어서 바둑두는 정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五老峰前，	오로봉 앞
白鶴遺址。	백학관 터에
長松蔭庭，	키 큰 소나무 그늘진 뜰에서
風日清美。	바람과 햇빛은 맑고 이롭다웠다.
我時獨遊，	나는 이따금 홀로 이리 저리 거닐었는데
不逢一士。	선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였다.
誰歟棋者，	그런데 누구일까, 바둑두는 사람은
戶外屢二。	문밖에는 두 결례의 신
不聞人聲，	사람 소리 들리지 않는데
時聞落子。	이따금 바둑알 놓는 소리만 들린다.
紋枰坐對，	줄무늬가 그려진 바둑판에 마주 앉으니
誰究此味。	누가 이 맛을 찾으리.
空鉤意釣，	공으로 갈구리질 하고 뜻(意)으로 낚시질하는데
豈在魴鯉。	어찌 방어나 잉어가 있겠는가.
小兒近道，	내 아들 바둑 두는 도를 조금 알아
剝啄信指。	딱딱 소리내며 손가는 대로 놓는다.
勝固欣然，	이기면 진실로 기쁘고

41) 王水照, 《蘇軾選集》, 241쪽.

敗亦可喜. 저도 또한 즐겁다.
 優哉遊哉. 여유 있게 노닐 듯이
 聊復爾耳. 이럭저럭 다시 한 판 더 둔다.⁴²⁾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 있게 노니는 듯한 바둑두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空으로 갈구리질 하고 뜻으로 낚시질한다(空鉤意釣)"는 시구는 그 착상이 신선하다. 전반적으로 시의 산문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이렇듯 동파는 머리 빗기, 낮잠자기, 발 씻기, 茶 마시기, 바둑 觀戰 등 일상생활의 小事를 통해 그 생활정취를 소묘하고 있다. 바로 고독과 고통을 녹이고 현실생활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즐기는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파의 해남도 流配詩에는 민족화합, 역사인물론, 도가의 養生論, 생명 의지의 표현에 대한 내용도 보인다.

IV. 結 論

東坡는 왕조시대의 체제에서 살면서, "궁하면 홀로 그 몸을 좋하게 하고, 영달하면 천하를 겸하여 선하게 한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孟子·盡心上》)는 지식인의 인생규율을 따르고 있다. 그는 집권자들에게 거슬려 유배의 땅에 갔을 때도, 결코 인생에 대한 환멸감을 표현하지 않았고, 도리어 강한 생명력을 보여 주었다.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는 여전히 믿음과 정취로 충만했고 고결한 품격을 유지하여 초연한 태도로 지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유사한 난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도 하나의 귀감이요 모범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원복귀의 의지와 제2의 고향감정이 강약의 변화를 보이며 교차하고 있는 이중주의 모순을 보이고 있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2의 고향감정이 더 농후하게 나타난다. 그가 처음 해남도에 도착했을 때는 사방을 돌아봐도 정말 '길이 다 막혀버린 탄식(途窮之歎)'이 있었으나, 점점 '모든 사람이 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등 넓은 시야로서 발상을 전환하여 서서히 超脫의 경지로 진입하고 있다.

한편 그는 도연명을 인생과 문학을 스승으로 삼아 도연명의 시구로 集句詩를 짓

42) 《觀棋》, 《蘇軾詩集》, 卷42, 2310쪽.

고 和陶詩를 완성하며, 그의 인생행로와 생활태도를 추앙하고 평정과 달관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그와 일체감을 표현하면서도 그 가운데 자신의 개성적인 형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가치가 높다. 그리고 상쾌한 바닷바람, 파파리 부는 아이들, 남방식물, 인정미, 黎母山의 자연 등 아름다운 해남도 風物을 읊고 있다. 나아가 머리 빗기, 낮잠자기, 발씻기, 茶 마시기, 바둑 관전 등 일상생활의 소소한 정취를 통해, 고독과 고통을 녹이고 유유자적하게 삶의 정취를 만끽하는 여유가 나타난다. 그것은 그의 모든 생활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정신을 위한 “爲己”적인 때문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 동파는 밝고 맑은 면이 강하여 “天涯何處無芳草”적인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기질이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주위를 응시하고 자신을 단련시키며 정진하고 있다. 특히 요소 요소에서 [問題提起 — 發想的轉換 — 超脫] 등으로 전개되는 정신세계 순환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유유자적하게 인생을 즐기는 풍이 나타난다.

요컨대, 동파는 해남도 유배지에서 고뇌를 초탈하고 자아를 발견하고자 했으며, 그것을 문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자기완성을 지향했고 그것을 사회로 확산시키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기자리를 얻지 못함(不得其所)”에서 “자기자리를 찾기(得其所)”를 향한 추구이다.

(* 이는 선결논문인 <宋朝蘇東坡與朝鮮朝金秋史之比較研究>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蘇東坡 分野의 草稿가 그 範疇도 넓고 나름대로 價値가 있다고 여겨져, 그 초고를 바탕으로 하여 加筆과 修正, 부분적 擴大와 縮小를 거친 논문이다.)

【參考文獻】

- (宋) 蘇軾 撰, 《東坡志林》, 臺北, 木鐸出版社, 1982.
 (清) 王文誥 輯注,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全8冊), 北京, 中華書局, 1987.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全6冊), 北京, 中華書局: 北京, 1990.
 范會俊, 朱逸輝 選注, 《蘇軾海南詩文選注》,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北京, 1990.
 謝桃坊, 《蘇軾詩研究》, 成都, 巴蜀書社, 1987.
 蘇軾研究學會 編, 《論蘇軾嶺南詩及其他》(蘇軾研究學會全國第三次學術討論會論文集), 廣東人民出版社, 1986.
 蘇軾研究學會, 儋縣人民政府 合編, 《紀念蘇軾貶儋八百九十周年學術討論集》,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1991.
 宋九龍, 《蘇東坡和陶淵明詩之比較研究》,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2

- 王水照 選注, 《蘇軾選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 王水照, 《蘇軾》, 臺北, 萬卷樓圖書, 1993.
- 王水照, 《蘇軾論稿》, 臺北, 萬卷樓圖書公司, 1994. 12.
- 王水照, 王宜瑗 選注, 《蘇軾散文選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 龍榆生校箋, 《東坡樂府箋》, 臺北, 華正書局, 1990. 3.
- 洪瑛欽, 《蘇東坡文學的背景》, 慶山: 嶺南大出版部, 1983.
- 拙稿, 〈陶淵明에의 同一化樣相과 陶詩의 創造的 受容 — 蘇軾詩의 한 斷面〉, 大東文化研究, 제31집,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96. 12.
- 拙稿, 〈蘇軾詩에 나타난 自我內面的 隔絶로 인한 抒情〉, 中語中文學, 제18집, 韓國中語中文學會, 1996. 6.
- 拙稿, 〈蘇軾詩에 나타난 現實世界와의 乖離와 그 解消〉, 《瀟園金喆洙教授停年紀念 中語中文學論叢》, 瀟園金喆洙教授停年紀念中語中文學論叢刊行委員會, 1997. 5.
- 拙稿, 〈蘇軾詩研究〉, 성균관대 중문과 박사논문, 1996. 8.
- 拙稿, 〈蘇軾의 第1次貶謫期詩 小考〉, 首善論集, 第17輯, 成均館大 大學院, 1992. 12.
- 拙稿, 〈蘇軾의 惠州貶謫期 詩에 나타난 精神世界(1)〉, 《中堂 丁範鎮教授六秩頌壽紀念論叢》, 中堂 丁範鎮教授六秩頌壽紀念論叢發刊委員會, 1994. 11.
- 拙稿, 〈蘇軾의 惠州貶謫期 詩에 나타난 精神世界(2)〉, 中國文學研究, 第12輯, 中國文學研究會, 1994. 12.
- 拙稿, 〈出仕와 隱退간의 葛藤과 그 解消 — 蘇軾詩의 한 斷面〉, 中國文學研究, 제13집, 中國文學研究會, 1995. 12.

【英文提要】

This paper researches Su Dong Po's poetry, focusing on his poetry during his exile in Hainam Island. Because he was against the ruling officials of the dynasty, he was ousted to the place of exile, although he never expressed the disillusionment and rather showed strong vitality. Though he lived a destitute life, his life was full of confidence and sentiment and he kept his noble personality and transcendental attitude. At the same time he became an typical example of Chinese literary men of exile: the worse circumstances they had, the better works they created. So he became an ideal model to contemporary people experiencing the same troubles.

The followings are the specific aspects of his poetry. First of all, there were

e the contradictions of the dual willingness to return to the center of the political circles and to adjust himself to the place of exile(the sentiment of the second homeland). As time passed, the sentiment of the second homeland appeared more clearly. Secondly, when he first got to the place of exile in Hainan, he lamented his alienation from all surroundings, however, he changed his way of thinking: "All people are living in an isolated island surrounded by the sea", and he slowly continued to be in the state of transcendence. Thirdly, he admired Tao Yuan Ming's literature and life, expressing a sense of identification with him, and he well expressed his own personality. Fourthly, he described the beauty of the landscape in Hainan Island, including fresh sea breeze, children blowing pipes, and the southern plants. Fifthly, through such trifling sentiments of daily life as combing hair, taking a nap, drinking tea, and watching chess game, he melted down the solitude and the anguish of life, and expressed free and calm and composed sentiment of life. He managed the sincere and spiritual life, not the superficial life.

In fact, with the following way of thinking, "Wherever doesn't the flavored grass exist?", he inclined toward self-fulfillment and expanded himself to the society. This means that because he did not acquire his position in the world, he was in the process of finding his own position.

【주제어】

中原復歸意志, 제2의 고향, 隔絶, 超脫, 陶淵明, 海南島, 閑適